

광주 동구·남구 표발 점검

현 청장에 의사·간호사 도전장

동구청장

광주 동구청장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 노희용 후보와 통합진보당 김미화 후보, 무소속 오형근 후보의 3자 대결로 치러진다. 광주 동구의 경우 전통적인 야당 지지세가 강한데다 현직 프리미엄까지 갖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노희용 후보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김미화 후보와 오형근 후보의 '선전'이 주목되는 선거구다.

지난 2012년 보궐선거에서 동구청장에 당선된 새정치민주연합 노 후보는 치열한 경선전을 치른 뒤 재선을 노리고 있다.

노 후보는 짧은 기간, 현장 밀착형 구정 활동을 펼치며 민심을 다져왔고, 유권자들을 상대로 재선을 통한 동구발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문화 중심 행복 동구' 1년을 보면 4년이 보인다고 '1년'을 내걸고 재임기간 1년의 성과를 앞세워 표발을 누비고 있다.

노 후보는 '동구 발전을 위한 8대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문화전당 주변 공터가 등을 활용한 문화방·예술촌·게스트하우스 조성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사업추진 ▲월남·용산지구 등 명품 주거단지 조성 ▲옛 위생매립장 부지 문화체육공원 조성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와 주민복지공동체 활성화로 현장 중심 복지 강화 ▲문화콘텐츠·인쇄·출판·뷰티산업 등 도심형 산업 육성 ▲인권 읍보존도 도입 및 공직자 청렴현장 제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간호사 출신인 통합진보당 김미화 후보는 전 전남대병원 노동조합 지부장과 광주시당 의료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의료인이다.

■광주 동구청장 후보



정당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노희용(51)	통합진보당 김미화(37)	무소속 오형근(51)
경력	·광주 동구청장	·광주시당 의료민영화 저지 투위 위원장	·오형근 성형외과 원장
주요 공약	·월남·용산지구 등 명품주거 단지 조성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추진 ·도심형 산업육성	·도시형 보건지소 건립 ·국립 어린이집 신축·운영 ·노인 복지카드 실시	·문화 올레길 조성 ·구도심 재개발·재생사업 추진 ·충훈만 복지당 구축

노희용·오형근 후보 2년만에 '리턴매치' 병원노조 출신 김미화 '복지·건강' 강조

'동구를 건강하게, 민주주의와 복지를 건강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김 후보는 의료인답게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동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표심을 훑고 있다. 김 후보 측은 동구에서 통합진보당의 지지세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비해 약하지만,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을 배출하면서 바다 민심은 우호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후보는 ▲도시형 보건지소 및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구립 어린이집 신축·직영 ▲혁신학교 확대 및 예술고 이전 ▲충장축제에 아시아 민주인권축제로 확대 ▲노인 복지카드 실시 ▲물·전기·가스 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의사출신인 무소속 오형근 후보는 지난 2012년 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섰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노 후보에게 석패한 뒤 '와신상담'하며 바다 민심을 다져왔다.

오 후보는 애초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후보로 선정됐지만, 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불합리성 등에 문제 제기를 한 뒤 경선 불참과 함께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오 후보는 ▲푸른길~조선대~무등산 잇는 문화 올레길 조성 ▲계림동·산수동·동명동·학동·소태동 등 구도심 거주자 중심의 재개발 재생사업 추진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여성·노인·아동·장애인 기반시설 등 복지망 구축 ▲신규 주택 단지 개발과 문화복합타운 통한 정주여건 활성화 ▲편안하고 안전한 시민 중심의 안전동구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현 청장 對 '前 청장지원' 대결

남구청장

광주 남구청장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 최영호 후보와 무소속 강도석 후보들 간의 대결로 진행된다.

재선에 도전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최영호 후보에 맞서 무소속 강도석·김대현 후보가 도전장을 내고 본격적인 선거전을 시작했다.

특히 남구에서만 17번째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강 후보와 황일봉 전 남구청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후보가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최 후보에 맞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언제나 주민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선거 슬로건을 내건 최 후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전국민 애도 분위기라는 점을 감안해 거리 유세 없이 발로 뛰는 선거운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최 후보는 구청장 재임기간 4년 연속 매니페스토 전국 1위를 달성했다는 점과 남구 공유재산을 1400억원에서 3800억원으로 증가시킨 점을 주요 성과로 꼽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 후보는 정당의 전폭적인 지원과 구청장 재임시절 뛰어난 조직과 인지도를 최대한 이용해 득표를 향상에 힘쓰고 있다.

최 후보는 ▲거점별 어르신 인생 이모작 센터 2개소 추가 설립 ▲문화교육특구 종합지원센터 건립 ▲오카리나 음악도시 조성 ▲호남학전환원 유치 ▲양과동 공예집적화 단지 조성 ▲대촌지역 그린벨트 해제 통한 에너지 자급도시 조성 ▲양림·월산·사직·백운·방림·주월지역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

■광주 남구청장 후보



정당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최영호(49)	무소속 강도석(59)	무소속 김대현(42)
경력	·광주 남구청장	·한민족통일문제 연구소장	·전 국회의원 4급 보좌관
주요 공약	·문화교육특구 종합지원센터 건립 ·양과동 공예집적화 단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추진	·남구 시설물 관리공단 설립 ·저소득층 소득증대 사업 추진 ·여성근로자 취업 확대	·24시간 보육서비스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센터 설립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최영호 "재선기회 달라" 김대현 "젊음" 승부 17번째 선거 출마 강도석 "이번이 마지막..."

시하고 있다.

무소속 강도석 후보는 광주 남구에서 17번째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했다. 강 후보는 1988년 13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데 이어 남구청장과 시의원 등 지금까지 16차례 출마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17번째이고, 남구청장만 7차례다.

강 후보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강 후보는 ▲남구청 이전 계약 개선 ▲사람 중심의 교육·안전·복지 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 공동체 사업 전개 등 남구발전 5대 핵심 공약을 내놓았다.

무소속 김대현 후보는 광주지역 5개 구청장 후보자 중 40대 초반의 가장 젊은 후보다. 하지만, 국회의원 4급 보좌관과 김

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통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열린우리당 시절 중앙당 당직을 맡은 경험과 민주통합당 종합상황실 부실장을 지내는 등 젊은 나이에 정치경험이 풍부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특히 김 후보는 황일봉 전 남구청장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새정치민주연합 최영호 후보와의 한판 승부가 기대된다.

김 후보는 ▲조선대 제2병원 남구 유치 ▲주거복지 공동체 실현 ▲아이 키우기 좋은 24시간 보육서비스 ▲교육비 지급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센터 설치 ▲어르신 일자리 제공 ▲장애인용 위한 취업 복지 실현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운영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직 의원끼리 '맞대결'... 전남대 재학생 출사표 '눈길'

시의원

광주시의원 선거전도 치열하다. 동구 1선거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대 무소속 후보 간 대결이 치러지고, 동구 2선거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 무소속 후보 간 3자 구도다.

1선거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현역 시의원을 꺾고 공천권을 거머쥔 임택 후보와 전 광주시의원을 지낸 무소속 김종민 후보가 치열한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임 후보는 앞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당시 득표를 51%로 당선된 민주당 유태명 후보에게 석패를 당했지만, 33.27%의 득표율을

올리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다. 김 후보는 제3대 광주시의원 재임시절, 예산결산위원장을 지내는 등 풍부한 의정경험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선거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조세철 후보와 통합진보당 권민영 후보, 무소속 김영호 후보의 3자 대결이 진행 중이다. 박준선 국회의원의 사무국장을 지낸 조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장당발기인으로 참여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시의원 당선을 노리고 있다. 25세의 젊은 나이로 시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권 후보는 현재 전남대 환경공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무소속 김영호 후보는 민주당 중

■광주 동구 시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 (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임택 (50·민·전 동구의원) 김종민 (61·무·전 광주시의원) 조세철 (54·민·전 박준선 국회의원 사무국장)
제2선거구	권민영 (25·전 전남대 총학생회장) 김영호 (49·무·전 민주당 중앙당 부위원장)

※민=새정치민주연합, 진=통합진보당, 무=무소속

당당 부위원장을 지낸 정당 활동 경력과 지역에서 LPG충전소를 운영하며 지역 민심을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지지세를 확산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선거구, 무투표 당선...2선거구, 의장들끼리 한판승부

시의원

광주시의원 선거구는 3곳이다. 이 중 제1선거구는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표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을 통과한 조 후보는 현역 시의원으로서, 남구의회 의장을 지냈다.

제2선거구는 남녀 대결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대결 구도도 치러진다. 전 5대 남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유정심 후보와 제6대 남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무소속 권용일 후보가 맞붙는다. 전·현직 남구의 의장 간 대결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 후보는 새정치연합이 남구 제2선거

구를 여성 전용구로 지정하면서 공천권을 거머쥐었고, 권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할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권 후보는 재선 남구의회원을 지낸 만큼 단단한 조직이 강점이어서 새정치연합 후보와의 한판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제3선거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춘수 후보와 통합진보당 박정준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박춘수 후보는 제6대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만큼 지역 조직이 탄탄하다는 게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맞서는 박정준 후보는 '사랑의 물레산타 남구 분부장'과 '남구교육 희망네트워크 추진위원장'을 지내는 등 시민사

■광주 남구 시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 (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조영표 (52·민·광주시의원)
제2선거구	유정심 (58·민·전 5대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 권용일 (48·무·전 6대 남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3선거구	박춘수 (54·민·전 6대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 박정준 (36·진·사랑의 물레산타 남구분부장)

※민=새정치민주연합, 진=통합진보당, 무=무소속

회운동 경력과 30대의 젊은 패기를 앞세워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한판 승부를 벌일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수수료(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정수)

NAVER *건강생활* **단비플라워** *농 저보수로*

단비플라워

죽아화완3단 근조화완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나왔다! **조**라고 부르기에 가까운 **속살이 조동조동**하고 부드러운 **왕대구**가 드디어 시판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왕노가리, 왕가리비, 맥터, 상박지**

(주)해감은 광주 상무병원 건너편에 **해감 노가리호프** 본점을 개업하였습니다.

와! 곁들이면 이것이 바로 **금상첨화!!**

가맹비가 따로없는 새로운 형식의 프랜차이즈 기업 (주)해감농수산에서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판 및 체인점 문의
대표전화 : 1899-0618 (062) 654-0633
FAX : (062) 654-0644

통신판매업신고필
농협보증 에스프로 가입
특허출원 41-2014-0016935
사업자번호 408-86-08501
계좌번호 농협 301-0147-7265-51

HG 해감 노가리 호프
농업회사법인 (주)해감농수산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5-21